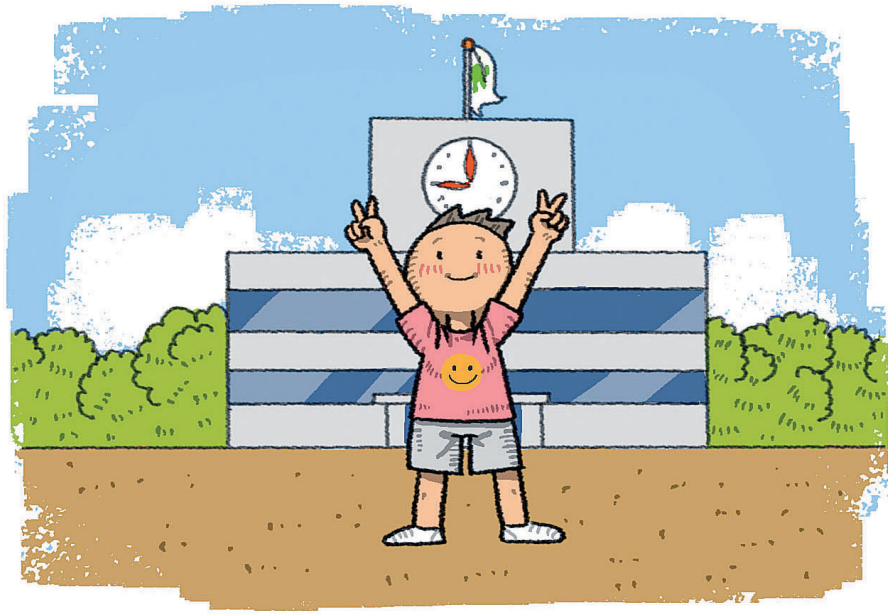


학교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법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곳을 알아야

School is for studying but also where I grow up.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일찍 학교를 세운 곳은 수메르입니다. 수메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던 고대 문명으로, 쉐기문자를 발명했습니다. 문자의 발명으로 수메르에는 '필경사'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점토판에 쉐기문자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을 길러내기 위한 점토판의 집(에두바, edubba)이 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학생들도 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럿이 어울리면서 존중하고, 협력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조정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평생을 함께 할 친구를 사귀는 곳도 바로 학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가장 즐겁게 떠올릴 추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학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보기 바랍니다.

“달마다 24일을 학교에 다녀야 한다. 지겨운 학교.”

최근 이런 글을 적어놓은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왜 학교를 지겹고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할까요? 힘든 공부, 하기 싫은 숙제가 가장 큰 이유일까요. 그러나

- * 여러분에게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 *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 때는 언제인가요?
- * 학교에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겠어요

I will go to school to have fun and enjoy my classes.

동화 속에는 가끔 별난 학교가 나옵니다.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새커(Louis Sachar, 1954~)가 동화 속에 만들어 보인 웨이씨이드 학교는 무척 별난 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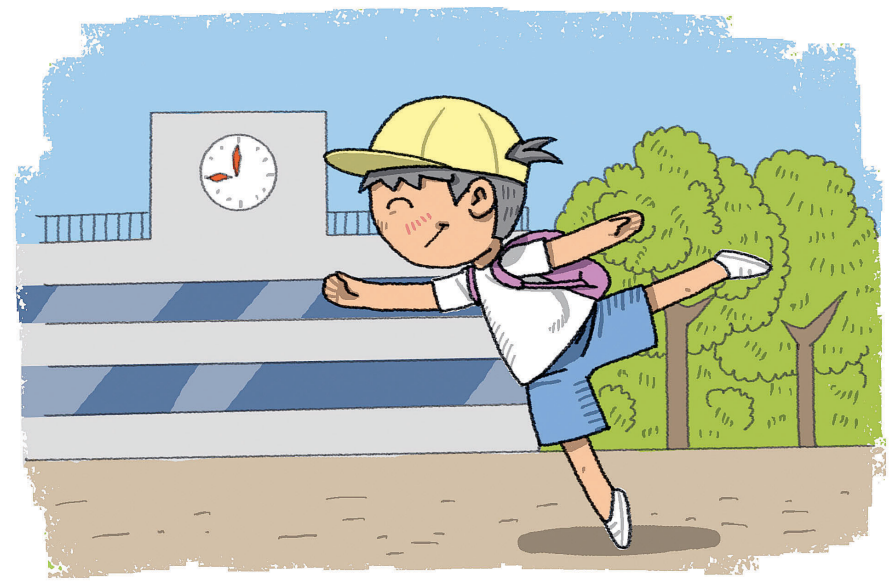
1층 건물에 서른 개의 교실을 나란히 지으려다가 그만 위로 서른 개의 교실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30층짜리 학교에 화장실은 단 한 곳뿐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은 그 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모두 괴상하기 그지없고 교실에서 벌어지는 일도 엉뚱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이런 학교만 있다면 휴일에도 가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웨이씨이드처럼 엉뚱하고 괴상한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학교는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한 곳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다닐 수도 없는 학교, 재미를 붙이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친구를 사귀고, 공부는 조금씩 노력해서 두려움을 없애고, 규칙을 잘 지켜서 선생님을 웃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조별 숙제나, 반대항 축구나, 그림 그리기 대회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 학교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 * 즐거운 곳이 되려면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 *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I will be thankful for my teachers.

헬렌 켈러(Helen Adams Keller, 1880~1968년)는 어릴 때 몸살 전염병에 걸려서 시각, 청각, 언어 능력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없고 대화를 나누지 못해 학습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곱 살 때 앤 설리번(Anne Sullivan, 1866~1936년) 선생님을 만나면서 헬렌 켈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켈러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우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애썼습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의 가르침은 헬렌 켈러가 평생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귀를 열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는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도 어릴 때 시각을 잃었지만 수술로 시력을 회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사물을 만지게 하고 그것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주었습니다. 그러기를 며칠 만에 헬렌은 분수대의 차가운 물을 만지며 '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 사나웠던 아이가 온화하게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의 기쁨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 뒤로 헬렌 켈러는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다녔고 마침내 박사가 되었습니다. 헬렌

- * 기억에 남는 고마운 선생님이 있나요?
- *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 * 여러분이 선생님이 된다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해 주고 싶은가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 진귀 화두집 <평은> 출판

大方廣佛華嚴經 사경집

개장계

위요이 신리 관고 신의사상 화엄경은
비밀의교에는 만나기 어렵도니
그가 지은 신성한 인연으로
이름을 받아지니 사리에 들어가니
원근에, 깨달음 신의사상(佛華嚴經)이
대승경계가 온 나의 마음경계 이니
나야, 부처님의 진심한 뜻임을 알지아니
깨닫지니 몸은(身)으로 몸이아니 하니
이 사경집으로 신의사상(佛華嚴經)이
신재해살려 신의사상(佛華嚴經)이
꽃으로 신의사상(佛華嚴經)이
신은 병(病)의 광(廣)의 지역이 지경로 몸이아니
신은 병(病)의 광(廣)의 지역이 지경로 몸이아니
신은 병(病)의 광(廣)의 지역이 지경로 몸이아니
신은 병(病)의 광(廣)의 지역이 지경로 몸이아니

無量壽佛
珠王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룸비니 꽃배달

불교전문 전국 꽃배달 서비스
“룸비니 꽃배달”이 불자님들을 찾아갑니다.

홈페이지 <http://lumbiny.co.kr> 대표전화 1644-9108 / 팩스 : 02-733-1018
계좌번호 하나은행 481-910003-86105 (예금주 : (주)느티나무커뮤니케이션)

룸비니 꽃배달서비스는 불자 꽃가게 네트워크를 위하여 꽃가게 회원을 모집 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불자 꽃가게 사장님이 계시면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집문의 : 1644-9108

불교전문 꽃배달서비스
“룸비니”는부처님 가피와 함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비를 실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룸비니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른쪽QR코드 스캔)